

## 이철우·권성동·홍준표, 'TK신공항 특별법' 띄운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국민의힘 당차원 지원” 약속  
“경북에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일 국회 본관...대구·경북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최우선 과제로 시·도지사 1호 공약"이라며 "지역민이 하루빨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예산지원 등 공약이행을 다시 한번 더 약속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은 국민의힘 대선-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尹 대통령에 거는 기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건의를 수용해 빠른 기간 내에 협조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당 권한대행과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김용판·김정재 시·도당위원장, 임이자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자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배석했다. 이날 홍 시장은 "신공항은 특별법제정이 우선되어야 3년 이상 단축된다"고 강조하고 이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다며 권 권한대행에 통 큰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권 권한대행은 "특별법제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에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홍준표 대구시장

지역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경북 의원이 신공항 특별법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저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 단독 법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해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우리 지역 출신들 대통령 만들었는데 우리 빈수레였어요. 대구·경북 지역민은尹 대통령이 지역민에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무산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다"며 지역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이외에도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금호강 수변개발 사업, ▲경북 원전 최대지역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제9대 첫 임시회 28일 폐회

<제224회>

조례 14건, 5분 자유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하기태 의장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28일 제224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원구성 완료 후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로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주요 핵심 의제는 역시 집행부 2022년 주요업무보고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집행부 파견인사를 놓고 민선 8기 최기문 영천시장과의 힘겨루기 논란으로 고강도 의회 운영이 예상되었으나 조례를 제외한 예산심사가 없는 임시회여서 19일 미뤄왔던 파견 전문위원 보직인사 발령을 완료하면서 마찰없이 순조롭게 넘겼다. 11일 동안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징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윤리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중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수정해 의결하고,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13건은 각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해 이날 처리하고 폐회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건의 5분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방향 및 고강도 지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제9대 첫 임시회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라는 주제로 일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조금 해결했을 뿐 중소농가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도시 인력 도입 MOU, 인건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선제적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박주학 운영위원장도 28일 마지막 제7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복숭아 명품과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농민을 응원하는 박주학 의원입니다"로 시작해 지역 복숭아 조기출하를 위한 시설 및 기술지원을 강조하면서 영천시의 농업 시정방향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복숭아의 경우 재배면적이 경북 1위(2,129ha)에 걸맞지 않게 기술력과 재원부족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가소득 증대와 명품과일 생산을 위해 영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기태 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지만 초선 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많은 질문을 쏟아 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것이 이번 임시회의 결과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5분자유발언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라는 주제로 일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조금 해결했을 뿐 중소농가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도시 인력 도입 MOU, 인건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선제적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박주학 운영위원장



“더위야 물러가라” 장마권이 물러난 가운데 지역에서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했다. 영천은 낮 최고기온이 27, 28일 30도, 29일부터 8월 5일까지 평균 32도를 오르내릴 전망으로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는 지난 23일 문내-외 2공원, 망정 3공원, 일고 강변공원, 영천명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삼산아파트 앞 3년만에 개장한 문내-외 2공원 물놀이장이 높아터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 줄 도심 속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이들의 활짝 웃음소리와 시원한 물소리가 절로 힐링이 되고 있다.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이장 선출 두고 복마전

임명권자 청통면, 이리지도 저리지도...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휴양마을' 공급유용, 미해결...'행복마을', 마을돈 4500만원 은혜사에 왜?

청통면 치일리 마을이 7개월째 이장 선임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이장에 출마한 K씨, H씨가 상호 비방전을 펼치며 격화하고 있다. 또 임명권자인 면사무소는 이같은 논란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이장 선임과 관련해 영천시 고문변호사에 자문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니편내편으로 갈라져 목은 마을비리까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복마전 양상까지 띄고 있어 임명권자인 청통면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복마전(伏魔殿)=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앞서 이 마을은 2019년에도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사업(마을 수익사업)인 '은혜로운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해 특정인이 주

인인양 마구잡이식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임원들이 출사퇴환바 있다. 이 사건은 공급유용부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서 마을은 또 2016년에 조성한 '행복마을'(3억4800만원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설립 당시 사업비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은혜사까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진상파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장 선출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 마을 주민들까지도 니편내편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상호 비방에 비리폭로 복마전 양상이다. 9면, 11면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 市 집행부, 전문위원 파견인사 갈등 잠정 협상

<사무관>

의회▶19일 A사무관 산업건설전문위원 발령... 영천시▶빠른 시일 내 본청 재 발령 시사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간 A사무관(전문위원) 파견인사 논란<분지 6월 30일자 보도>이 잠정 타결됐다. 의회가 인사 거부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19일 A씨에 대한 잠정 보직 발령을 수용하면서다.

지난 20일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에 따르면 19일자로 A씨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영천시가 A씨를 파견발령한 후 18일 만이다. 그동안 A씨는 전문위원실(무보직) 발령으로 대기상태에 놓여 있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A씨를 의회 전문위원으로 기관 파견발령했다. 하지만 의회는 영천시가 기관 파견을 하면서 파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부 인사하듯 의회가 원하지 않는 사

를 단행했다며 거부해 한 때 양 기관 인사 강행과 거부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 기싸움 갈등을 빚어왔다.

반면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이같은 양 기관 인사 논란은 앞서 제8대 의회(의장 조영제) 막바지에 시작됐다. 8대 임기 이틀을 남겨놓고 A씨에 대한 파견인사 불수용으로 영천시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8대 임기를 마쳤다. 결국 제9대(의장 하기태)로 넘어왔다. 때문에 제9대 의회에서 A씨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고, 18일간 보직 보류상태로 이어져오다 지난 19일 의회가 영천시의 이번 A씨의 파견 인사를 잠정 수용하면서

타결됐다.

이같은 타결은 이미 영천시는 정기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당장 다시 당일자 취소로 되돌리기도 어려운 처지인데다. 의회로서도 전임 의장이 거부한 인사를 무시하고 수용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양 기관 인사 힘겨루기로 파행을 지속할 경우 오는 25일부터 이어질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사상 초유의 전문위원 없는 상임위가 열리게 되는 것에도 의회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보인다. 때문에 양 기관이 일단 수용 후 빠른 시일 내 재발령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8월 영천민주단체협의회 상임대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제342호 사회 영천신문 3

### 영천시의회▶영천시, 파견 인사두고 마찰... 조영제 의장 인사 거부

의회 사무관·집행부, 의장 배정 논란... 구두보고는 했는데 결재는 안 받아 (의회-집행부)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경각 협력 6개월 만에 갈등 조정 조영제 의장, "9대 의장 등록자라도 할의 마쳤다"... 제의 요구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와 영천시(시장 최기현)의 파견인사 논란이 19일 잠정 타결됐다. 영천시는 19일 A씨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다.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영천시는 "의회가 사무관 4명(4배수)을 대상으로 파견 요청해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



의회 사무관·집행부, 의장 배정 논란... 구두보고는 했는데 결재는 안 받아 (의회-집행부)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경각 협력 6개월 만에 갈등 조정 조영제 의장, "9대 의장 등록자라도 할의 마쳤다"... 제의 요구

## 尹 정부-이철우, '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이철우 지사, 긴급 성명서 발표 "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 대응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2일 일본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자 긴급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尹 정부 '즉각 철회' 대응과 동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북도 환경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는 이날 이와 관련해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일본이 22일 기사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죽도·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한 2022년 일본 방위백서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 외교부도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경북도는 "일본 방위백서의 18년째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 왜곡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하고尹 정부와 나란히

동시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규탄 성명서 원문>

### <규탄성명서>

1.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2022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반박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끈질긴 역사 왜곡 주장은 향후 영토 분쟁을 노리는 부당한 영토침탈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4.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침략 사실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22. 7. 22.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 이만희,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지난 25일 오전 10시, 남래진 중앙선관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임기 6년의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들이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중앙선관위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이만희 의원실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특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몫 후보자로 선정된 남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는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 김형동·서범수·전봉민·최준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장, 김교흥 간사, 강민정·송재호·이해식·이형석·조웅천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 등 총 13명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를 연이어 거처며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남 후보자의 선거관리 소명의식, 공정성 등에 관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후보자는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이 공직생활의 첫 임지다. 그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2010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2011년) 등을 지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올해 제2회 지적재조사지구...334필지 52,299㎡ 지정

경북도, 11개 시·군 26개 지구 7,603필지 382만4천㎡ 지정 승인

영천시는 올해 제2회 지적재조사(국책사업) 규모는 문내·외지구 52,299㎡로 확정됐다. 앞선 제1회 청통 신원-임고 삼매지구 지정때보다 268필지 433만7,491㎡나 작은 규모다.

경북도는 올해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서 道내 11개 시·군 26개 지구 7603필지(382만4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천시는 문내·외지구 52,299㎡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때는 道내 18개 지구 8,514필지를 지정하는데 이어, 이번 '제2차 지적재조사지구'에는 26개 지구 7,603필지를 지정 승인했다.

이 때도 영천시는 청통 신원-임고 삼매 등 2개 지구 620필지 48만9790㎡를 승인 받아 총량비 1억8500만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았다.

경북도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2개지구 2만645필지로 국비 41억으로 추진된다.

道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316개 7만9,534필지 사업지구를 지정해 23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82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치를 위성 측량 및 드론 촬영 등 첨단 측량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장지수 기자

## "왜? 안 만나 주냐?" 이장에 흥기

술 취한 50대 남성 긴급 체포 마을 이장, 대구지역 병원 이송

영천시 북안면에서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이유로 마을 이장에게 흥기를 휘둘러 가슴과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북안면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A(56) 씨는 26일 오후 8시쯤 북안면 한 마을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흥기로 마을 이장 B(56) 씨의 가슴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상처

를 입혔다.

A씨는 이장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은데다 복날인 이날도 마을 행사장에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장이 무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 포항-경주 동해안권역 발전 새 날개 달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

포항의 산업과 경주의 문화·관광 상생 기대...명칭변경 기념식 이철우 지사, 경북 동해안권 발전 성장축 자리매김 지원 약속

경주-포항이 새 날개를 달았다. '포항공항'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하면서 공항경제권 확대로 동해안권역 발전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이같은 계획으로 15일 공항청사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항경주공항은 민간항공사가 취항하는 경북 유일 공항이다. 경부선 KTX 개통(2010년 신경주역, 2015년 포항역)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그동안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침체

를 겪어 왔다.

앞서 경북도는 이번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을 위해 경북도·포항시·경주시, 한국공항공사 및 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왔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이같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

이같은 공항명칭 변경은 국내 첫 사례로 경북도는 이날 기념식은 "지역 간 상생협력의 상징으로 공항 명칭변경을 축하하고, 포항과 경주가 하나 돼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포항시·경주시 및 한국공항공사는 약 5개월 걸쳐



공항청사 시설물 정비 및 주변 도로 표지판 재정비 등을 완료하고, 이달 14일부터 포항과 경주의 이름을 담은 포항경주공항으로 기념식을 갖고 새 날개를 달게 됐다.

이에 따라 '포항경주공항'은 지난 3월부터 김포노선 1일 2편에서 4편으로 증편 해 운항하고, 공항-경주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노선버스(경주 1000번)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여행인플루언서 팸투어 초청 홍보 >공항 이용 관광객 항공권 할인 >김포공항, 서울역 등 수도권 주요 집객지에 전광판 홍보 >주요 SNS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항경주공항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대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과 함께 경북 동해안권 발전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지원해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지수 기자

## 독자투고

### 임고강변공원 주차장 "카라반 조리·숙박 못하게 해 주세요"

카라반 주차장 점령에 일반차량 도로변 불법주차로 밀려나 행정당국, "주차장법 단속 근거 마련 못해 어려움 따른다" 애로

지난 23일부터 임고 강변공원 물놀이장이 개장된 가운데 휴가철을 맞은 이용객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강변이 뽕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한 주차장을 카라반족들이 차지해 실제 이용객 차량은

도로변으로 밀려났다. 27일 본지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해 온 독자 K씨는 "카라반들의 숙박행위로 주차장을 독차지해 정작 가족단위 일반 강변공원 이용객들 차량은 인근 도로변으로 밀려나 불법 주차로 휴일이면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면사무소에 단속을 요청해도 감감 무소속이다"며 항의해 왔다.

실제 현장에는 20여대의 카라반이 주차장을 아예 가로로 차지하고 요리 등을 하고 있어 일반 이용객의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시 공원관리 관계자는 "매일 단속과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법과 공원이용 관련 법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그러나 "계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경찰에 협조를 의뢰해 우리 행정요원과 합동으로 주차장 숙박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 특별점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내달 16일까지 경북 264개소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가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섰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5일 이달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를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232개소와 위험구역 32개소에 대해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단행한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0명대를 넘어 재유행 양상을 보이자 이번 물놀이 안전관리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도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7.9.(734명), 7.10.(903명), 7.11.(534명), 7.12.(1,162명), 7.13.(1,650명)>

이를 위해 경북도는 道 사회재난과장을 총괄로 4개반 13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설치 현황, 안전지킴이 확보·배치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道는 23개 각 시·군 해당부서에 자체 수시점검을 독려해 피서객들이 여름철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여름 경북 대표 관광명소

# 2022 한여름 산타마을 "봉화 분천으로 오십시오"

봉화군 분천2리 '산타마을' 23일 개장 8월 21일까지 30일간 운영

- ▶**체험관광**: 산타열차(O.V-Train), 물총놀이, 산타썰매, 산타레일바이크, 당나귀꽃마차, 산타우체국, 이글루 소원지, 알파카 먹이주기, 거대 트리 전망대
- ▶**볼 거리**: 분천역사 내외부 승강장, 산타시네마, 산타조형물,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 마을지붕 붉은색
- ▶**공연행사**: 분천역 앞 관광객쉼터 주말 공연
- ▶**먹 거리**: 산타빌리지 푸드코트, 농특산물 판매장, 산타카페 운영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054-679-6351~3),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

# 경북도, 비상경제대책 2차 회의... 민생안정 예산 대폭 확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4487억 편성 제333회 임시회 넘겨 민생안정 긴급지원 자금 1470억원 늘어난 2685억원 우선 투입



경북도가 민생안정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중앙부처 민생안정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달의 경제부지사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는 道 비상경제대책본부 5개 반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가장 먼저 소상공인, 서민생활 등 6개 분야 민생안정 긴급 지원 사업 1차 추경예산 최종 반영 등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따라 도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690억과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84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당초보다 1470억원이 증액된 268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7.8일) 시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 추진과제에 대응해 신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대응반 등 5개 대책반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조 448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8일 열리는 道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넘겼다.

구체적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강화(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안정망 확충) ▷서민 식료품비 부담경감(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식품원료) ▷기타 생계비 부담완화(유류비, 주거비, 통신비) 등이 우선 편성됐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례 없는 대내외 악재로 위기에 빠진 민생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안을 챙기겠다”며, “비상대책본부의 대책반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합심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 17개 시군 54개 중소기업사 품평회...국내 대형 온라인마켓 입점 기회

경북세일페스타 하반기 품평회 상품기획자 상담하는 방식 진행

경상북도는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27일 지역 기업들에게 마켓컬리·오아시스 풀필먼트(입고부터 운송 반품처리까지의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채널 입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세일페스타 하반기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지역 중소기업 54개사, 채널 상품기획자(MD) 10명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내 17개 시군의 기업에서 직접

제조한 농·축·수산물가공품 100여종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 참석한 채널 기획자들로부터 입점계약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특히, 품평회에서는 참여기업에서 출품한 주력 제품들을 전시해 직접 보고 제품경쟁력, 입점절차 등을 상품기획자들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이번 품평회를 단순 행사성을 지나 지역 기업들이 입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참여한 유통사인 마켓컬리·오아시스와 각각 지난해 4월, 올해 4월 ‘경상북도 중소기업

업체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경제

대응을 위한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규모는 2016년 33.4%에서 지난

해 12월 51.4%로 급격한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

김효정 기자



# 봉화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준공

총사업비 260억원 투입 지구환경교육 특화 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

경북도 봉화(춘양)에 부지 10만 6222㎡, 연면적 8572㎡ 규모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가 준공돼 청소년들의 특화된 활동을 위한 수련 시설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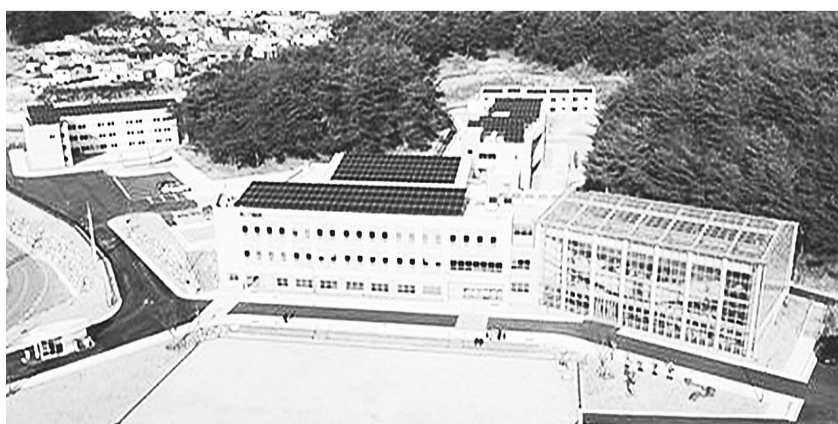
경북도는 지난 21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현국 봉화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미래환경센터 준공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총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돼 운영센터(환경실험실, 자원활용실,

온실체험관, ESD포럼실 등), 생활관(162명 수용), 포레스트어드벤처(목본 15종, 초본 17종 등), 잔디마당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속발전가능하도록 기후변화, 재난위험 감소 등 소비 및 개발이슈 통합교육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받아 청소년들의 수련시설로 운영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유교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봉화에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가 개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미래자원인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임종식 교육감, "학교 구성원 주도 균형있는 학교 공간 만들어라"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워크숍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 학교 관계자와 본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포함, 경북교육청에서 위촉한 촉진자까지 총 144명이 대상이다.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은 지난 6월 24일 유치원 등 총 20개교가 선정됐다.

또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구성원 전체가 주도적 설계 참여로 교실, 복

도, 특별교실, 실습실 등 영역별 학교 공간의 유연한 학습 가능과 학습·휴식·놀이 균형이 이루어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한다.

워크숍은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의 개요 및 일정 안내 △공

간혁신 및 촉진자 활동 사례 발표 △사용자 참여 설계 및 미래학교 공간 조성 사례 △촉진자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등 학교공간 창조 및 활용 방안이다.

김효정 기자



# 경북 2022학년도 2학기 유치원 학급편성 확정

원생수 1학기 대비 103명 증가 유치원 수 4개소 줄고, 학급 수 1,914학급, 유치원생 수 31,555명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지난 19일 2022학년도 2학기 유치원 학급편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수는 1학기보다 4개원 줄어든 680개원

으로, 학급수는 1학기와 같은 1,914학급에 원아 수는 31,555명으로 1학기 대비 1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

와 면 단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면단위 유치원 1개소에는 학급편성 최저기준 원아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규태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유치원 학급편성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내 취학 대상아 수의 변동 추이를 고려해 유치원별 학급수 및 원아 수를 적정하게 운용해 실질적인 유아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경북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112억 확보

### 상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벼 건조저장시설 등 현대화 착수



상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박용한)이 농림축산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RPC)분야 2023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4억, 도비 7억, 시비 16억, 자부담 45억 등 총사업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4월 공모신청 후 전문심사단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상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상주 농협RPC들간의 통합을 통해 규모화로 거점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상주농협과 함창농협이 공동 출자한 통합 법인이다.

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 쌀 품질 향상과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 등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벼 가공시설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상주통합RPC에는 노후화된 가공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벼 가공시설현대화에 28억원, 시간당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원료 투입구 등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에 27억원, 집진시설 개보수에 8억원 등 총 사업비 112억원이 투입

된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대외환경 변화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쌀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환경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열차 타고 '산타마을' 가자!...봉화 분천 '산타마을' 23일 개장

### 봉화군, 2023년까지 국·도비 250억원 투입 여름 경북 대표 관광 명소 만든다

경북 봉화에 한여름 때 아닌 '산타마을'이 개장됐다. 핀란드 대표적 관광지인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에서 아이디어를 끌어와 봉화군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국·도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북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든다.

지난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 분천역에서 봉화군, 코레일 경북본부, 지역주민, 관광객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여름 산타마을 개장식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0일간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에서 운영하는 '2022 한여름 산타마을'은 마을의 지붕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하고 거대한 트리 전시장, 알파카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산타마을 운영 기간 중에는 새롭게 정비한 트리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물총 대전과 다양한 타악기와 관악기의 마칭밴드 퍼레이드, 스토리텔링 비눗방울 쇼, 산타 타르트 만들기, 썬산타를 찾아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하는 산타마을 한여름 별빛 야경을 수놓는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봉화 분천 산타마을은 다시 찾고 싶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이



번 여름에도 산타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기승 속에 꿈과 낭만을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주원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학교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 교육장은 지난 20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장 이원호) 회원 42명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를 개최하고 "이번 현장 연수가 학교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는 창의융합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상

북도교육청과 학원 및 경상북도교육청남부미래교육관 등 선진기관 견학을 통해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 현안, 정책 등에 대해 협업하여 영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어 달라"면서 재차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 주요 관광지표시 신재생 LED 시스템 설치

### 영천시, 교차로 5곳 설치

영천시는 서문 로터리등 주요 교차로 5곳에 도로명과 주요 관광지 안내 표지판을 친환경 신재생 LED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친환경이며 신재생 LED는 주요 전력(태양광, 풍력)의 단점을 보완해 장마, 폭설등의 악천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 야간에도 별도의 전력 공급없이 사용가능하다.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 LED에 색을 넣은 효과로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를 가능하게 하며 도시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영천시장, 군·경 기관 방문...안보·민생·치안유지 근무자 격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관내 기관을 방문하고 근무자들을 위로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의 기관방문은 3사관 학교를 비롯해 안보와 민생치안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은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육군 3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박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 시장은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지역 향토방위와



소방 활동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등 현장 근무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호국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1사 1묘역 가꾸기' MOU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2일 영천호국원에서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2011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을 위한 소양교육을 진행해왔다. 병무청 직원들은 이번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호국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묘역 1,260기의 비석닦기, 봉사활동 등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게된다. 한편, 국립영천호국원은 현재 공

공기관 및 포스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기업체와도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호국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제공은 물론 국립묘지 체험 활성화와 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고경초, 환경동아리 '꿈그린 고경 텃밭 나눔 장터'

고경초등학교(교장 석장근)에서 4-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이브니 동아리>가 지난 20일 '꿈그린 고경 텃밭 나눔 장터'를 열었다.

이브니 동아리(I Love Animal)는 고경초등학교의 환경동아리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학교 전체 에너지 소비량 조사 및 에어컨 적정온도(26도) 유지 등의 토의를 통한 대안 방법을 찾는 활동도 진행됐다.

학기 초 '꿈그린 고경 텃밭'과 동물 사육장을 가꾸는 활동과 잡초 뽑기, 물 주기, 작물 수확하기 등을 하며 텃밭을 깨끗하게 가꾸고, 동물 사육장 청소와 닭과 토끼의 먹이 주기 등의 동물 보살피기 활동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대창초, "건강하세요"...대창노인복지센터 방문

영천대창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이 지난 20일 대창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학교에서 여러 번 연습한 큰절을 올리며 시작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평소 학교 수업 및 방과후 수업에서 배운 우쿨렐레 연주와 시 낭송, 노래, 피아노 연주 등을 발표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또, 발표를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근면과 성실의 가치를 배우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마를 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예절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영천고, '독도지킴이' 동아리 울릉도·독도 탐방

영천고등학교(교장 서정원)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2박 3일간) 독도지킴이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탐방'을 실시했다.

'독도지킴이' 동아리는 3학년 8명(대표 최현빈)으로 구성돼 점심시간과 동아리 시간을 이용해 울릉도-독도에 대해 이미 내용을 숙지해 왔고 평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실질적인 체험이 되도록 학교에서 계획하게 됐다.

이번 탐방은 육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울릉도의 화산지형인 촛대바위, 나리분지, 해안가와 독도 등을 답사했다.

또, 독도를 지키는 홍순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영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영천여중, 방과후학교 '쿠오레' 운영

영천여자중학교(학교장 김시용)는 지난 22일 교내 동아리실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환인 방과후학교 '쿠오레'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 개설로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도록 돕고,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쿠오레' 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을 고려한 베이직댄스, 모듬북, 악기밴드 등 동아리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어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개설됐다.

'쿠오레'는 이탈리아어로 '마음', '심장'을 뜻한다. 1886년 '사랑의 학교'로 알려진 소년의 일상을 통한 인간애와 조국애를 아름답게 서술한 아동문학의 원제가 '쿠오레'로 알려졌다.



영천전자고, 2022 직업교육박람회 부스 운영

영천전자고등학교(교장 권철환)는 지난 13, 14일 경주 화백센터에서 열린 직업교육박람회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영천전자고등학교는 2021년에 청소년 비즈쿨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전국에 6개뿐인 '우수학교'에 선정됐고, 지도 교사(구은우)는 2018년과 2021년 총 두차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비즈쿨 전문교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 학교 부스는 특성학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군특성화 관련 상담 및 청소년 비즈쿨(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 체험활동으로 운영됐다.

또, 학교 부스에 임종식 교육감(경상북도 교육청), 윤승오 경북도의원(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등이 방문하기도 했다.



영천중, '분단의 길목에서 통일을 품다'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는 지난 19~ 20일 양일간 경상북도 교육청 지원사업 일환으로 20명의 학생을 인솔해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2022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분단의 길목에서 통일을 가슴에 품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고성 민통선을 통과하거나 통일전망대에서 DMZ(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전방 체험활동이다.

학생들은 또,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 DMZ박물관, 속초 신흥민 마을 등도 방문했다.

이번 전방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 세대로 분단의 현실 극복을 위한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 시대를 열어갈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평화 감수성 양성 기회를 가졌다.



영화초, '제1회 해피업마켓' 운영

영화초등학교(교장 권해인) 학생들은 1학기 동안 마일리지 적립해 지난 21일 본교 과학실에서 해피업마켓(Happy-Up)을 운영했다.

학년군별로 실시된 이번 해피업마켓은 학생들이 평소 적립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며 올바른 인성과 경제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5-6학년 전교어린이회임원 및 학급도우미들이 물품 및 가격을 정하고 판매 활동 및 통장을 확인함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이뤄졌고 전 교직원도 동참했다.



임고초, 알뜰시장수익금 23만원 영천 희망원 기부

임고초등학교(교장 강석중) 6학년 학생 13명이 알뜰장터와 미니 카페의 수익금을 지난 18일 영천 희망원을 방문해 뜻깊은 곳에 써달라며 23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6일 본교에서는 2곳으로 나누어 강당에서는 개인 생활용품 및 소지품으로 알뜰장터를 진행하고 과학실에서는 완제품 음료외에도 에이드나 아이스크림을 직접 소분하는 방법으로 미니카페를 운영했다.

기부 이유로는 학생들은 의미있는 수익금을 사용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영천 희망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청통초, 올해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청통초등학교(교장 임진성)가 올해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운영되면서 지구 온도 상승,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현상 등 자연과학 환경 수업을 착실하게 다녀나가고 있다.

학교는 지난 19일 호미반도 둘레길(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서 시작하여 흥환해수욕장까지에 해양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에 나서면서 자원의 소중함도 함께 배워 나갔다.

이날 학생들은 「해양 쓰레기 예술작품으로 변신」이라는 주제로 해양 쓰레기를 분리해 조개, 씨글래스, 나뭇가지,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효성이용소 정두한 대표, 16개 경로당 감자·커피 전달

영천시 서부동 소재 효성 이용소 정두한 대표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16개 경로당에 감자 10kg 50상자와 커피 20상자(200만원 상당)를 제공했다.

정두한 대표는 영천시 자연보호협의회 부회장으로 매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해 물품을 전달하고 병원 무료 이발, 교통봉사 등을 하고 있다.

또, 정 대표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지금처럼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동 청년회(회장 김태욱)는 15일 초복을 맞아 교동 경로당 등 4개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수박을 전달했다.



북안면-마야실비노인요양원, 독거노인 보호 강화 협약

영천시 북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윤동훈)는 지난 21일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야실비노인요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북안면의 취약노인 발굴 및 독거노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공적지원 및 후원 물품 등을 연계해 마야실비노인요양원과 협약을 통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동훈 북안면장은 “취약 어르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마야실비노인요양원 임직원 및 사회복지사,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도, 화남면 신호리 마을 '외갓집 프로젝트' 진행

경상북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해 영천 화남면 신호리에 이달 26일부터 매주 1~2회 '외갓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영천 지역 문화·예술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영남대 학생들과 마을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해 어른신-청년 교류 및 버스킹 공연 등 각자의 전공과 재능을 선보이며 이외 에도 랩 영상찍기, 지역특산물 자두 홍보 등의 주제로 청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교감 및 동네 어르신의 일상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학 공모에 선정된 영남대학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8월부터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가게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영천시청년상우협의회, YMCA아동센터 영화관람 초청

영천시청년상우협의회(회장 이준석)는 지난 21일 영천 YMCA(이사장 김순호)에서 운영하는 영천시야사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성일)와 금호윤성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백정환) 이용 아동 60여명을 별빛영화관에 초청해 영화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동들은 문화체험 기회를 갖기 위해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미니언즈 2'를 관람했다.

영천시청년상우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앞장서 온 영천 대표 청년단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의회는 "영천YMCA와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장학금 기탁

금호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철훈)와 새마을부녀회(회장 허정출)는 지난 25일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기탁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금호강변 정리, 수확작물 나눔 전달식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장은 평소 금호강변 꽃만 조성, 마을 환경정비, 소외계층 봉사외에도 매년 장학금 기탁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새마을지도자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는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하며 나와 이웃,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봉사와 실천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영천시 자원순환협의회 300만원 장학금 기탁

영천시 자원순환협의회(회장 황상록)는 지난 18일 장학금 300만원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기탁했다.

협의회는 관내 재활용 업체들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발족한 단체로, 타 지자체의 불법 폐기물 반입을 적극 감시·감독하고, 회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재활용 규정을 준수하고 재활용업을 발전하고자 구성됐으며, 현재 47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황상록 회장은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뜻깊은 출발을 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인재 육성과 나아가 영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별빛촌 목요장터 일시휴장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영천시 별빛촌 목요장터'(이하 목요장터)가 여름 무더위를 피해 일시 휴장계획을 밝혔다.

올 해 목요장터는 망종동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선보이며 작년에 이어 두 해 째이다.

목요장터 휴장일은 7월 28일과 8월 4일로 총2회이다.

한편, 다음 달 11일에 다시 재개장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16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한다.



중앙동 청년회, 관내 경로당 25개소 수박 전달

영천시 중앙동 청년회(회장 한창훈)는 25일 중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회원들과 함께 수박을 전달했다.

이날 청년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청년회는 앞으로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행복한 중앙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성현 중앙동장은 “청년 회원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로당을 후원하고 방문하는데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금호윤성모닝타운 닭곰탕 전달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 금호윤성모닝타운 내 거주하는 어르신 및 저소득 독거노인 100여명에게 닭곰탕과 밀반찬을 전달하는 중복지행사를 했다.

이날 닭곰탕 행사는 DGB사회공헌재단이 기탁한 성금으로 금호윤성타운 내 입주민들로 구성된 영천아침마을 주민모임 회원들이 직접 밀반찬과 닭곰탕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때 이른 폭염으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영천시, 어린이 물놀이장 4개소 오픈... 23일부터 한 달간 운영

### 문내·의 2공원, 망정 3공원, 임고강변공원, 영천댐공원 물놀이장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문내·의 2공원(삼산아파트 옆), 망정 3공원(창신아파트 옆) 어린이 물놀이장과 임고강변공원, 영천댐공원 물놀이장 4개소를 동시에 개장해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문내·의 2공원과 망정 3공원 물놀이장은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등 놀이 시설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새롭게 단장해 쾌적한 물놀이장으로 개선해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행락객이 휴가를 위해 찾는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공원은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개장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재개장하는 만큼 각 공원 내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동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설물 정비와 수질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을 하

고, 애완견 동반 출입, 취사 행위, 키보드, 자전거 등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는 가급적 자가용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동시에 안전요원을 각 배치시켜 소음 예방은 물론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 제60회 경북도민체전 폐막...영천시 종합 7위

### 영천시 태권도·궁도, 종합 2위... 市 출전 종목 중 최고 성적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 포항 일원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전이 지난 18일 비가 오는 가운데 폐막됐다.

32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태권도와 7명의 선수가 출전한 궁도 두 종목에서 각각 상위권 2위를 달성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배구와 축구는 각각 4위와 9위에 거치면서 영천시는 종합 7위에 머물렀다.

영천시는 이번 체전에 전체 29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 389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김천(5위), 안동(6위)에 이어 종합성적 7위를 기록하고 폐회

식 시상식에서 영천시는 모범상을 받았다. 전체 종합 1위는 포항시가 차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실업팀인 태권도팀을 제외하면 궁도가 지난대회 6위에서 4단계 경총 뛰어 오른 개인 2위 단체3위로 종합성적 2위를 차지했다. 영천시 출전 종목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영천시궁도협회(회장 장지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앞서 지난 5월 말 1,2차 市대표 선발전으로 최종 7명(각궁 4명, 개량궁 3명)을 선발해 40여일간 단체 훈련을 해왔다.

市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체전 영천시 종합 7위와 관련해 "출전 하지 못한 종목이 다수 많았다"면서도 "모든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해 당초 4~6위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행락질서 확립 종합 대책 추진

### 7월 20일~8월 21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직원 합동 근무



영천시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역 주요 관광지 등 5개소에 직원을 배치해 행락질서 및 물놀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8월21일까지(33일간)를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직원 합동 근무조를 편성해 불법 주·정차, 불법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市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치산 관광지, 임고 강변공원 등 지역 주요 5개 관광지에 근무조를 집중 배치해 상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행락질서 및 물놀이 안전에 대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행락지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질서를 잘 지키시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232개소와 위험구역 32개소에 대해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단행했다. 김효정 기자

# 올 하반기 요가·중국어 등 13개 강좌 개설

###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강좌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

영천시 동부동 올해 하반기 주민자치강좌는 모두 13개로 확정됐다. 오는 17일부터 한 강좌당 20~40명으로 구성해 월5,000원씩 4개월분 선납 선착순 모집한다.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택)는 지난 14일 행정복지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위원 및 고문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설 강좌는 전반기 12개강좌(요가, 스포츠댄스, 서예, 중국어, 서각, 난타, 디스코장구, 고고장구, 스마트폼과 컴퓨터, 웃음힐링체조, 탁구(오전), 탁구(오후)에서 필라테스 1개 강좌가 추가된 13개 강좌다.

모집은 8.17 ~ 8.26일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동부동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월 5,000원) 4개월분(20,000원)을 선납해야 하며, 강의 시작은 오는 8월말까지 끝나는 전반기 강좌 종료 후 9월부터 시작된다.

김영택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하반기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이며 단합과 소통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 경북도, 관내 건설사업 현장 폭염대비 3대 기본수칙 점검

경북도 건설도시국은 27일 영양 일원 지방도 건설현장 및 지방하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대비 긴급점검

을 실시했다. 이날 영양 석보면 담곡리 청송~영양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과 청기면



소재 예산~청기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영양읍 반변천 하천재해예방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장마기간이 끝나고 폭염경보 및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등 폭염피해가 우려되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무더위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준비, 작업장소 인근 안전한곳에 그늘막 설치,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천특수교육지원센터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지난 23일 특수교육대상 학생 10가족(34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체험장소로 '시안미술관'과 '색, 사람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에서 주말을 이용해 실시됐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 양육 등에 힘들었을 가족들과 체험할 활동이 축소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이

다. 또, 관계자는 비장애 형제·자매들과 올바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간 소통 증진의 기회 및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및 효능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영천 설화마을 여름철 야간 개장 시작

영천시 화랑설화마을이 여름을 맞아 야간개장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설화마을은 '화랑과 별, 설화 관광데마파크'로 기존 오후 6까지 개방하였으나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이번 야간개장은 전시·체험시설

인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동영상관을 비롯하여 국궁 체험장과 야생화 관람실 모두 개방하고, 이외에 야외시설인 풍월못, 잔디마당, 설화재현마을 등은 무더운 여름 쉽터로 개방된다. 또 광복절인 8월 15일은 정상 운영하고, 그 외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은 휴관한다.



돋·보·기



<1면에 이어>

◆청통면 치일리 이장 선출 어떻게 되  
었길래

지난 26일 청통면과 치일리 주민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권  
모 이장 임기가 끝나면서 K·H씨 두  
후보자가 출마(권 이장은 후보 자동  
사퇴)해 지난 4월 11일 투표로 선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4월 11일, 주민총회,  
본지 기자 참석) 마을회관에 30여명  
의 주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K씨가  
H씨에 대한 마을규약 위반(사전선거  
운동)를 폭로하면서 출마 자격시비  
가 벌어졌다. H씨는 "증거를 달라~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K씨의 이같은  
행위를 비난하고, 이날 투표를 강  
행하려 했다. 그러나 격렬한 K씨의 저항  
과 몸싸움 끝에 투표는 무산되고 주  
민들에게 의혹과 불신만 남겼다.

◆치일리 이장 선거 공식기구 선거관리  
위원회(장)

본지 확보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  
면 앞서 H씨 등 후보자들은 후보등  
록일(3월 20일) 직후 지난 3월 24일  
(개발위원, 반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규칙과 마을규칙을 위  
반하면 스스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  
퇴하기로 한 각서」(사진)를 마을 공  
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노인  
회장 S씨)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선관위원장은 참석 13명의  
임원 전원이 찬성해 이장 선출을 위  
한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공식 위임  
받은 기구다. (그런데 4월11일 투표 무산  
후 이 회의록이 사라졌다. 글 후반에 설명)

앞서 권 이장은 후보자가 있을 경  
우 6년이상 연임 불가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시 이장 후보등록을 했다  
가 역시 "H씨와 이장 자리를 두고 사  
전에 밀실야합을 했다"는 K씨의 밀  
약설 폭로 주장과 연임불가를 이유  
로 후보를 사퇴했다. 그러나 후임 이  
장이 선출될때까지는 그 직(이장)이  
유지되면서 결국 K씨와 H씨 두 후보  
만 남았다.

때문에 선관위원장과 권 이장은 H  
씨에 대한 K씨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검증에 나서게되고 5월23일 마을회  
관으로 K·H씨를 호출하게된다. 이  
자리에는 이장과 선거관리위원장, K  
씨와 H씨, 증언자 그리고 하 모씨가  
참석했다. K씨는 "은혜사 스님도 H  
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시인했다"고  
말했고, 이어 H씨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증인도 "나는 K씨와는 친하지  
않다. 오히려 H씨가 전봇대 설치, 저  
수지 도감 관리권 등의 공약으로 자  
신을 도와 달라고 하여 실제 H씨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전선거운동 증언에 해명 못한 H씨  
... "자신 음해를위해 꾸며낸 패거리 거짓"

반면 H씨는 대면 증언에 대해 "있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이번엔 이장 선출 두고 복마전

지도 않은 허위사실이다"며 일축하  
고 "이같은 사실은 은혜사 스님도 그  
날(5월 23일) 전화 통화로 사실이 아  
니다고 밝혔다"며 반박하며 또다시  
냉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H씨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해명을 하지 못하고 양심선언 자리  
를 박차고 나갔다. K씨는 이런 H씨  
의 뒤에서 "답변하지 못하고 떠나면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겠다"고 고  
성을 높였다. 또 H씨를 호출한 선관  
위원장과 이장은 이같은 상황을 "H  
씨가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판단했  
다는 것.

그러나 H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  
간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모두 자  
신을 음해하기위한 꾸며낸 거짓이  
다"고 말하고 특히 "이같은 증인이

은 "이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  
는 것이고, 권 이장 측은 "모든 회의  
록은 새마을지도자(김 씨)가 기록과  
보관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여전히 공방 중이다. 이처럼  
사라진 회의록이 이장 승인 요청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되면서 K씨의 이  
장 승인은 지연된다. 현재도 K·H 양  
측은 회의록을 서로 상대방이 감추  
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과정에 앞서 H씨측은 청  
통면의 K씨 이장 임명에 대한 회의  
록 보완 요청기간 동안 선관위원장과  
이장 그리고 K씨측을 제외하  
고 별도 새 이장을 선출하기 위  
한 총회의 소집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 마을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관(면사무소)은 "4월 14일  
회관을 찾아간 것은 맞다"면서도 "이  
장 선거에 관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고 일축했다. "빠른 시일 내에 새 이  
장을 선출하라"는 관 지시형 문구는  
새마을지도자 김씨가 임의로 해석  
해 적은 글로 본인도 잘못 적은 것이  
다며 사과했다"면서 "절대 관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김씨도 인정했다.

또 "이장이 총회를 차일피일 미루  
고 (이장이)열어주지 않아 어쩔수 없  
이 6월 27일자에 다시 총회를 개최  
하게 됐다"는 H씨측의 주장과는 반  
대로 이장은 "앞에 면사무소에 K씨  
를 이장으로 승인요청해 둔 상태에  
서 또 새 총회로 이장을 중복 선출  
할 수 없어 K씨 문제 해결이 우선이

전망이다. "이런 해측이면 지난 7월  
1일자로 해야 맞지 느닷없이 H씨에  
대한 임명 추천서 접수 직전 현 이장  
해측은 의도적 새 이장 임명을 위한  
끼워맞추기"라는 K씨측의 주장이 제  
기된 것이다.

청통면의 문서내용과 전달 일자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K씨측 변  
호인은 청통면에 "규정에는 주민 총  
회의 추천과 추천 대상자 신상 등 공  
직 적격 심사만으로 통상적 이장의  
임명 승인을 판단해야 하는데 심사  
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K씨가 추천  
됐는데도 분실된 참석자 전원의 서  
명 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관이 의도  
적으로 K씨의 임명을 지연해 새 이  
장 H씨 선출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7월 6일자로 이장을 해측하고  
도 7월 11일까지 해측된 이장이 추  
천한 K씨에 대한 회의록 보완 명령  
은 기간을 합리화하기위한 것이다"  
는 K씨측의 의혹도 근거가 없지 않  
다. 더군다나 "7월 11일 2차 보완명  
령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날  
인 12일 새로 선출되었다는 H씨의  
이장 임명 추천서가 접수돼 관의 의  
도성이 짙다"는 주장도 K씨측으로부  
터 추가 제기됐다.

여기에서도 청통면은 "이장 해측  
과 보완명령은 별개의 일이다. 의도  
적 관 개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  
다"며 단호하게 사실을 부인했다.

◆마을기금 은혜사에 4500만원 전달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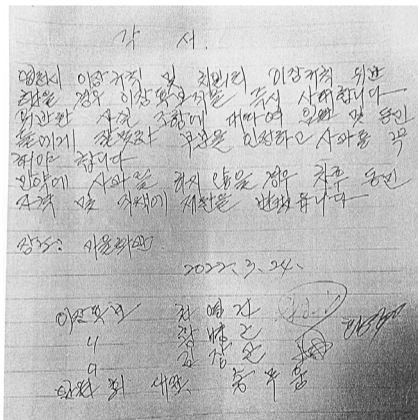
이런 과정에서 K씨측과 H씨측은  
마을사업과 관련한 상호 비리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어 상호간 법정으  
로 비화할 움직임과 함께 복마전으  
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장 선거가 마  
을 비리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상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은혜사에  
4천500만원의 마을기금이 들어갔다.  
'은혜로운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한  
횡령 변상금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  
았다. 납골당 또는 굿당(무속)을 하  
기위해 두 후보간 폭로전이 벌어지  
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치일리영농  
조합법인(대표 당연직 마을 이장)의  
'행복마을'(경북도 마을소득증대사  
업) 조성(운영)과 관련한 3억원의 보  
조금 사용에도 비리가 있다는 등 폭  
로전으로 상호 법정 대응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행복마을'은 2009년 영천시가 공  
공유지협의취득으로 부지 119㎡를  
매입해 총 사업비 3억4800만원(자  
부담 4800만원)이 투입됐다. 2016년  
건축 연면적 165.86㎡의 2층 건물을  
조성해 경북도 행복마을 소득 증대  
사업 '웰빙보따리센터'를 준공해 치  
일리마을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청통면은 관 개입 의  
혹가운데서도 4명의 영천시고문변  
호사에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동시 사퇴해 주기를 바라  
는 눈치이지만 두 후보는 그럴 계산  
이 전혀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청통면이 변호사 자문 결과가  
도착하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 사설 11면**

## 이장선거 관 개입 의혹에 청통면, "사실도 아니며 있어서도 안 된다" 해명 H씨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은혜사 스님 전화로 "아니다"해명 나선 이유 H씨, "K씨 주장은 모두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패거리 꾸며낸 짓" 청통면, 규칙에 없는 현 이장 일방적 해측... "적법성 논란 일 듯" 허위사실 적시한 「총회 개최 촉구 성명서 주민 서명」 효력 논란 선관위원장 총회 선거 위한 100만원 금품 후원...괜찮을까? 이장 선거전⇒⇒ 마을비리 폭로전으로... 청통면의 해법은?



4월 23일 마을위원회 대표에게 제출한 3후보의 각서



지난 4월 11일 이장 투표를 위해 치일리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주민들.

있는 자리라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  
다. 나는 K씨의 마음변화가 있는 줄  
알고 선관위원장의 호출에 응했을  
뿐 그 자리에서 이장이 K씨에게 (이  
장을)양보하라고하여 불가하다고 말  
하고 떠난것이다"며 "후보 사퇴를 시  
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날 자리는 공식 기구가 아니  
고 사적인 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마을 대표가 추천해도 이장 임명하러  
면...청통면, "꼭 회의록 필요하다"?

문제는 이 후 부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관위원장과 이장은 K씨를 이  
장으로 추천해 면사무소에 임명 승인  
을 요청했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관한 규칙」에 따른 것  
이다. 규칙에는 "읍면동장은 주민 총  
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심사하여 임명  
한다"고 되어있다. 통상적 관례를 살  
펴보면 이장과 선관위 등 마을 대표가  
추천하면 별 무리없이 이장으로 승인  
해 온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면은 반발했다. 7월 1일과  
7월 11일까지 "총회 참석자들 전원  
의 서명 회의록을 첨부하라"며 두 차  
례 보완명령을 내린 것. 앞서 분실된  
3월 24일자(13명)회의록이다. H씨측

이를 위해 H씨측은 기존 이장과  
선관위원장이 인사권자(면장)에 K  
씨를 이장 승인요청한 5월27일 같은  
날 총회를 열기위해 「마을 정상화를  
위한 총회 개최 촉구 성명서」를 인  
쇄해 29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다.

◆허위사실 적시한「총회 개최 촉구 성명  
서 주민 서명」효력 논란

하지만 또 이 성명서가 또 거짓 시  
비에 휘말렸다. 관(면장)이 이장 선  
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성  
명서는 앞서 투표가 무산된 나흘뒤  
인 4월 14일 "면장과 부면장이 마을  
회관을 찾아와 빠른 시일 내에 새 이  
장을 선출하라"고 했는데도 "총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이장이)총회 개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정상적 마을  
운영이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총  
회가 이뤄져 새 이장을 선임할 수 있  
도록 도와달라"는 호소였다. 마치 관  
이 원하고 있으니 빨리 다시 총회를  
열어 새 이장을 선임하도록 부탁한  
다는 H씨측의 간곡한 당부다.

여기서도 의혹제기는 여전했다. "허  
위사실을 적시한 성명서로 주민 서  
명을 받았다면 그 결과(29명 주민 서  
명)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K씨측  
의 주장이다.

기 때문에 추가 총회 개최는 불가하  
다고 했다"며 본지에 해명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H씨 측이 일방적  
으로 6월 27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된 자가  
100만원의 금품을 후원해 돼지고기  
와 떡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선거관리 부정을 K씨측이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청통면, 규정에 없는 이장 해측 적법  
성 논란

더군다나 청통면은 지난 7월 6일  
자 기존 이장 해측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연임 불가로 권 이  
장 임기는 종료되었지만 새 이장이  
선출될때까지 그 직(이장)은 유지되  
면서 지원금(월30만원)도 계속 지급  
되고 있다.

그런데 면이 현 이장을 이날(7월 6  
일)자로 문서로 해측했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관한  
규칙」 제3조(해임 및 해촉)에는 ▲1.  
신체·정신상의 장애와 ▲2. 형사사  
건으로 기소된 때 ▲3. 법령 및 조례  
에 따른 명령위반 ▲4. 지방세계납 3  
건 이상(30만원)일때만 해촉이 가능  
하다. 때문에 근거없는 일방적 이장  
해촉이라는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동정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은 27일 경찰국 신설 및 탈북어민 강제복송 등 주요 국정현안 질문에 나섰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이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찰국신설 반대에 정면 대응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은 일선 경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범죄협회가 있는 탈북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맞느냐고 질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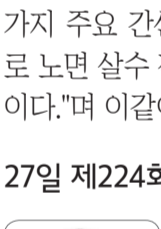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을 원전 최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포스텍에서 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자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다"고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또 "도가 정부 원전수출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자가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선제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고, 주요 도로 점검과 살수차 운영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올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시 보유 6.7톤 살수차 1대, 15톤 덤프 1대, 민간 살수 차량 1대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와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 노면 살수 작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의 제2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하 의장은 1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내실 있게 마무리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영희 서기관, 道 사상 첫 여성 자치행정과장 탄생

1998년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이후 25년 만에 조직 새바람 기대



경북도청 첫 여성 간부(서기관)가 탄생해 후배 여성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조직의 새 바람이 기대된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5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자치행정과장에 한영희 서기관을 임명했다. 1998년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이후 25년 만에 여성 자치행정과장(서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는 지금까지 남성 전유물이었다. 국경일 등 각종 행사와 의전, 시군 협력, 선거, 자치제도 등 도청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리로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이례적 인사에 놀라다는 반응이다.

문경 출신인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은 점촌고등학교와 상주대학교를 졸업, 지방행정을 33년간 수행해 오면서 아이세상지원과, 여성

가족정책관, 혁신법무담당관 등에 근무하면서 아동 및 돌봄지원, 법무혁신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추진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자치행정과장 임명으로 후배 여성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드럽고 감성적인 리더십으로 과장 역할을 든든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임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은 "최초 여성 자치행정과장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부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부담감과 기대에 더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선 8기 도청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정책들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당당한 포부도 밝혔다. 장지수 기자

박종우 한돈협회 경북협의회장 취임...청도군장학회에 500만원 기탁



경북 청도군 박종우 강산농원 대표가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신임회장 박종우)는 지난 13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임 박종우 회장은 2006년 청도군 풍각면에서 지난 2006년 농업회사법인 강산농장을 설립한 후 (사)대한한돈협회 청도군지부장, 경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북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청도군과 경북도와 협력해 경북 한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소탈한 취임사를 전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도 이날 "경북의 한돈산업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실 박종우 제6대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인사했다.

한편, 박종우 신임 경북도협의회장은 이날 미래인재육성에 사용해 달라며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하수 군수)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효정 기자

경북교육청, 초등학생 160명 25만원씩... 월드비전 지원 냉방비 '아이시원' 전달

지역내 저소득 에너지빈곤 학생 도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와 지역내 저소득 에너지 빈곤 학생을 위한 냉방비 '아이시원' 지원금 전달식을 27일 가졌다.

'아이시원' 지원금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160명에게 1가정당 월드비전이 아동(보호자)계좌로 냉방비 25만원씩 총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전기세 및 써큘레이터, 쿨매트, 여름용이불과 의류, 방충망 등 냉방용품 구입비도 가능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식 교육감, 박종구 월



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 등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찾아 아낌없는 지원으로 아름다운 희망 동행이 되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 기관이다. 김효정 기자

윤문조 영천시부시장 장학금 200만원 기탁



윤문조 영천시부시장이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영천시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2021년 1월 영천시부시장으로 부임해 영천시를 마지막 임지로 1년 6개월 만에 퇴임하는 윤 부시장은 지난 15

일자로 공로연수(퇴임)에 들어갔다.

윤 부시장은 1989년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가축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을 거쳐 고령군 부군수를 역임하고, 2021년 1월 영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경북교육청, 주민감사관 감사역량 연수... 학생의 권익보호·교육행정감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7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제7기 주민감사관 감사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관제'는 2010년부터 도입돼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해 열린 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을 자제하였음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55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해 학교급식, 학생생활지도 등 11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연수는 이달 1일자로 새롭게 위촉된



46명의 주민감사관(임기 2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주민감사관의 역할과 감사 이론, 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사례 등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주민감사관'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교육행정 발전 방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 및 권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법원 판결에도 아이 양육비 안주는 이혼한 전 남편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 찾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전 남편의 직장을 이용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합의  
를 하였는데, 남편은 이혼 소송 판결에서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  
는지요?

**답**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본인의 재산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라는 제도이고, 이  
러한 재산명시를 거친 후 강제적으로 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재산조회다.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2회  
이상 정기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③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  
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양육비 채권  
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어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그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발할 수도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 명령에 위반하  
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  
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  
지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  
이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당사자 간 양육비의 협  
의성립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에 대한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및 추  
심의 지원,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  
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였다.  
특히 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익  
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증여 의제 또는 간주 규정이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  
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피  
하기 위하여 부모 등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  
고 대출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  
은 차입금에 연 1,000분의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무상으로 담보제공을 받은 이익이 1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은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행정사각지대 이·통장 영역...청통면에 기대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하자"

"이·통장이 무섭다" 영천시 청통면이 아닌 어느 면장의 하소연이다. "우  
리 동네가 썩대밭으로 변했어요" 또 다른 어느 마을 아주머니와 개발위원  
의 이구동성이다. 이·통장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위  
에 군림하는 이장이라는 말이 그냥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청통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치일1리 이장 임명권으로 난감한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 이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정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법이 있고 원칙과 상식이 있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낭패라도 보듯 몸을 바짝 움크리고 있다. 해결하자니 관 개입이라 지적받  
고 가만히 있자니 복지부동이라 핀잔을 받을 처지다.

농촌마을 봉사직 '이장'은 옛말이다. 각종 이권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폐  
기물공장 또는 보조금사업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이장' 자리를 놓고 경쟁  
이 치열하다. 은혜사가 위치한 청통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4월 11일 이 마을에 이장 선거가 있었다. A, B, C 세 후보가 출마했다.  
그런데 B, C 두 후보가 부정시비에 휘말렸다. 현직 이장 B후보는 3연임에 걸  
려 출마하지 못하는데도 출마했다가 C와 밀약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사퇴  
하고 A는 남은 C의 사전선거운동을 문제삼아 후보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C는 "사실이 아니다"며 A와 C가 이장 자리를 놓고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편이 필요하다. 때문에 불법을 파헤치려는 A와 쪽수  
가 많은 C가 자연 목숨을 걸 수 밖에 없고 가장 쉬운 공격방법은 상대방 비  
리폭로다.

여기에 관(청통면)이 중립을 지킨다며 비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심은  
달랐다. 부정을 파헤치는 A보다 쪽수가 많은 C쪽으로 관의 무게추가 기울  
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절대라는 방점을 찍어 중립  
을 외치지만 속내는 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이다.

청통면이 이장선거에 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마을 대표자들  
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이장선거 공식기구인 선관위(위원장 노인회장)의 최  
종 결정(최종 이장 임명 추천서)을 거부하면서다. 통상 노인회 및 마을대표  
및 이장이 추천하면 별 무리없이 이장으로 임명하는게 공식이다. 그런데  
바로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C후보쪽에서 A는 이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  
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행정 과정을 보면 새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C의 시간을 벌여 준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다.

3월 20일 후보등록, 3월 24일 출마 세 후보 각서(공식 임원회의 자리), 4  
월 11일 투표일(C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폭로, 투표 무산), 4월 14일 면장·  
부면장 C측에 새로 총회 열이라 의혹 제기, 5월 23일 C의 사전선거운동 해  
명 거부(선관위에), 5월 27일 선관위(현 이장 B씨)측 청통면에 A씨 이장선  
임 요청 추천서(회의록 보완요구), 7월 6일 B씨 이장 해촉, 7월 11일 A씨측  
서명 회의록 보완요청일 종료, 7월 12일 C씨 새 이장 임명 추천서 접수, 청  
통면, A도 B도 임명하지 못하고 자문변호사에 자문요청 중

이 과정에서 A와 C측간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애먼 마을 비리만 부  
각됐다. '은혜로운 휴양마을' 공공유용 미해결, '행복마을' 조성 당시 사업비  
부당집행 의혹, 마을 돈 4500만원 은혜사로 흘러들어간 이유, 은혜사 입구  
납골당 조성 관여, 구당(무숙) 조성 의혹, 심지어 마을주민 가구에 불법 건  
축물까지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북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더는 방치했다가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당장이라도 청통면은 A,B  
두 후보 모두 자진 철회해 주길 희망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두 후보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영천에만 16개 읍·면·동에 411개 이·통장이 있다. 이장은 행정기관(읍·  
면)과 주민사이 가교 역할이지만 민선 자치제가 시작된 후부터 자치단체장  
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어서 행정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역으  
로 변했다. 바로 우유부단한 행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 영천시시장연합회장 취임식을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  
린것만 봐도 이장들의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짐작이 간다. 엄연한 청사  
사무실 불법 대여다. 각 마을의 이장이 아닌 연합회는 엄연한 민간단체다.  
그런데도 시장이 이를 허용했다. 바로 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장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매달 30만원의 수당, 상여금, 각종  
회의수당, 자녀학자금 혜택 등 연간 수백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도  
있다. 또 각종 이권에도 개입할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선거철이 되면 알게  
모르게 '갑질'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즘 면장위에 이장이고 시장위에도  
이장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비단 우스갯가 아니다.

변호사의 자문은 판사의 결정문이 아니다. 자문은 자문일 뿐. 청통면은  
변호사 자문을 방패막이로 기다리지 말고 마을에 정작 어떤 잘못이 있는  
지 분명히 살펴야 한다. A,B 둘 중 우호적 무게를 측정해서도 안된다. 어중  
간하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며 둘 다 동시에 사퇴하기를 기다려서도  
안된다. 벌써 이장선거 사태로 4개월이 훌쩍 넘었다.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청통면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애먼 주민들간 갈등과 반  
목의 시간을 늘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 포청천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기  
대한다.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하자!"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Bluehands

# 영천현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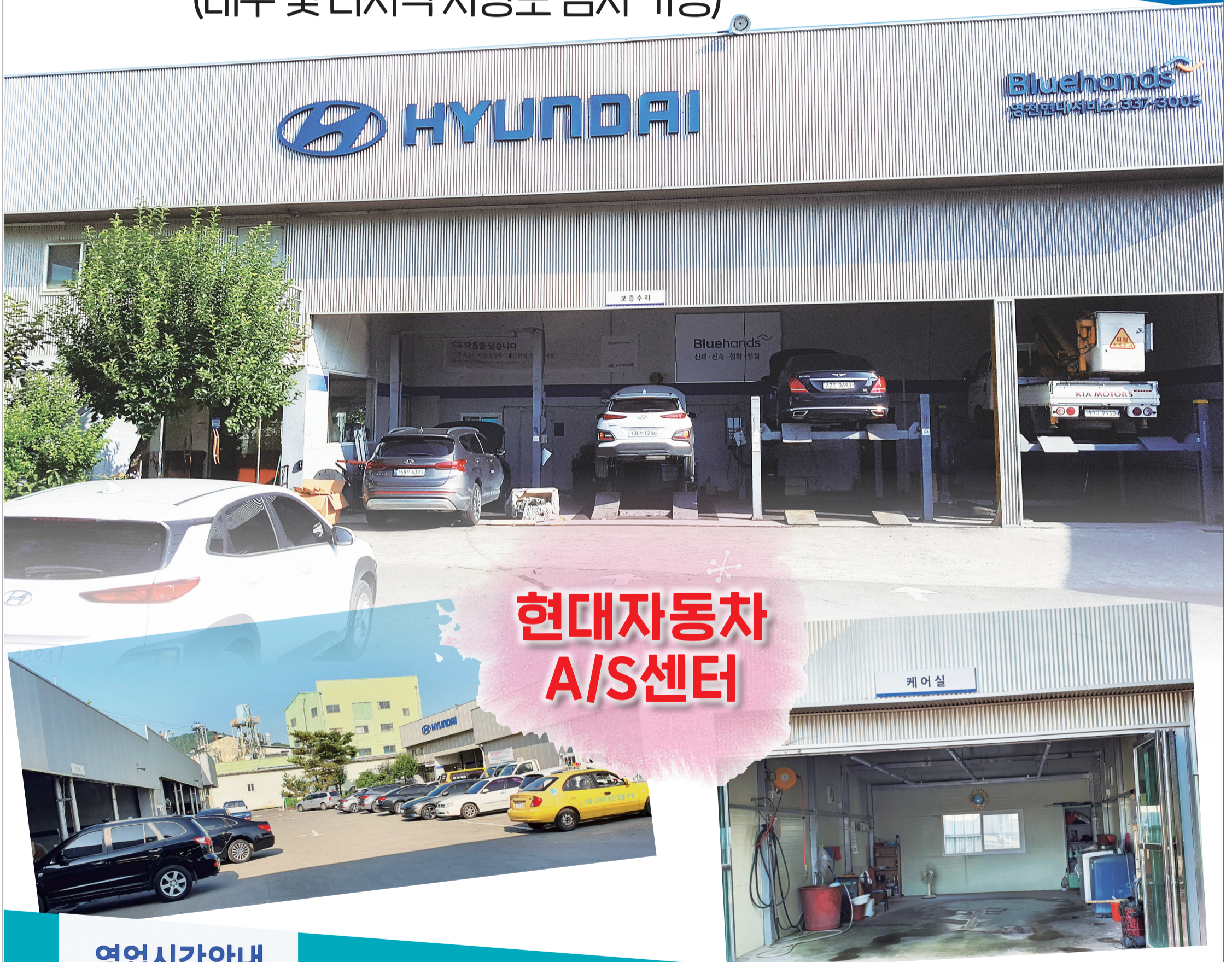
Since 1983

현대자동차 삼천리서비스를 **영천 현대서비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객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을 잊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현대서비스 대표 류시홍

## 대·소형 자동차 종합검사

(대구 및 타지역 차량도 검사 가능)



## 현대자동차 A/S센터

### 영업시간안내

영업시간/입출고가능시간  
09:00 ~ 18:00

토요일  
09:00 ~ 16:00

공휴일 휴무

TEL. 054) 337-3005~7 FAX. 054) 337-3004  
010-5210-3002 위치: 금호읍 신월리 경축사로 뒤